

장애인의 기부와 자원봉사 행동에 관한 연구 : 장애는 나눔을 제약하는가?

이종화*·손영은**

장애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꾸준히 개선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은 여전히 도움이나 나눔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장애인도 실제로 나눔의 대상일 뿐 나눔의 주체라고 보기는 어려운가? 통계청(2015)의 사회조사 데이터를 살펴보면 우리사회에서 장애인들의 나눔이 양적으로 결코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의 연평균 기부금액은 약 6만2천원, 연평균 자원봉사 시간은 약 3.7시간으로 전체응답자의 평균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 번이라도 기부나 자원봉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한정해 살펴보면 전체 자원봉사자들에 비해 장애인 봉사자들의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나눔행동에 대한 학계와 실천현장에서의 관심은 높지 않다. 이러한 이해의 부족으로 국내에서 장애인을 나눔의 주체로 인식하고 초점을 두고 있는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의 나눔이 우리사회와 장애인 개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에도 그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장애인을 수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보편적 고정관념을 전환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고찰을 통해 장애인의 나눔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실증적 근거들을 확인하고 관련된 연구 결과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표성 높은 표본을 통해 우리사회 시민들의 전반적 생활상을 확인하게 해주는 통계청의 2019 사회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의 기부금액과 자원봉사시간에 초점을 두고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정책협동과정, 박사수로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임연구원

전반적 실태와 영향요인을 검증하였다. 장애인의 기부금액과 자원봉사시간 사이의 상호관련성을 분석에 반영해 주는 보다 엄밀한 분석을 위해 상호의존성이 높을 수 있는 기부금액과 봉사시간 변수의 특성을 반영한 SUR토빗모형을 사용하였고, 비장애인의 나눔행동과 비교를 통해 장애인의 나눔행동이 갖는 특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장애인 집단의 나눔행동 특성을 도출하고 학술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으며, 장애인이 나눔의 수혜자로서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나눔에 기여하는 동반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주제어 : 장애인, 나눔행동, 기부, 자원봉사, SUR토빗

I. 서론

장애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꾸준히 개선되어 왔다. 과거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했던 시기도 있었으나, 주요 통계를 살펴보면 오늘날 장애인에 대한 평등과 복지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점차 보편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건사회연구원(2018)의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스스로가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인식은 2011년 40.0%에서 2017년 34.8%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청 사회조사(2017) 결과에서는 장애인 복지사업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5년 74.5%, 2017년 76.9%으로 응답자의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은 여전히 도움이나 나눔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는 것이 사실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2007)의 조사결과¹⁾에 따르면 응답자의 69.9%가 ‘장애인은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다.’라고 응답한 바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일반 시민들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양정혜와 노수진(2012)은 국내 주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을 어떻게 재연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장애인은 연민의 대상이나 의존해야만 하는 존재 또는 장애인 본인의 노력 보다는 주변의 조력이 중요한 객체로 묘사되고 있음을 지적했고, 서희정(2012)은 국내 주요 신문사설들이 장애인에 대해 주로 동정 또는 연민, 감동의 원천 등으로 묘사하면서 사회구성원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편견이 타 태도를 갖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렇다면 장애인은 실제로도 나눔의 대상일 뿐 나눔의 주체라고 보기는 어려운가? 통계청이 제공하는 2015년 사회조사의 원데이터를 살펴보면 우리사회에서 장애인들의 나눔이 양적으로 결코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눔의 대표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기부와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만 18세 이상 전체 응답자들의 연평균 기부금액은 약 8만6천원, 장애인 응답자들의 연평균 기부금액은 약 6만2천원으로 나타났고, 전체 응답자들의 연평균 자원봉사 시간은 약 3.7시간, 연평균 자원봉사 시간은 약 3.2시간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기부나 자원봉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한정해 살펴보면 전체 기부자들의 연평균 기부금액은 약 32만6천원, 장애인 기부자들의 연평균 기부금액은 약 30만3천원으로 나타났고, 전체 자원봉사자들의 연평균 자원봉사 시간은 약 29.2시간, 장애인 자원봉사자들의 연평균 자원봉사 시간은 약 30.0시간 나타났다. 기부금액에 있어서는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자원봉사 시간에 있어서는 오히려 전체 자원봉사자들에 비해 장애인 봉사자들의 시간이 더 많은

1) 전국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함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²⁾된 바 있는 것처럼 장애인보호작업장 종사자들이 급여의 일부를 모아 기부를 하거나 장애인 단체에서 직접 만든 음식을 지역사회 장애인들에게 대접하는 일들은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들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들로 인해 우리사회가 ‘나눔의 주체’로서의 장애인을 바라보는 것을 간과해 왔음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우리사회가 장애인의 나눔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함을 인식하게 해준다. 이러한 이해의 부족은 장애인과 관련된 학문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장애인을 나눔의 주체로 인식하고 초점을 두고 있는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을 수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보편적 고정관념을 전환하기 위해 장애인을 나눔의 주체로서 인식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이다. 첫째, 문헌고찰을 통해 장애인의 나눔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실증적 근거들을 확인하고 관련된 연구 결과들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둘째, 대표성 높은 표본을 통해 우리사회 시민들의 전반적 생활상을 확인하게 해주는 통계청의 2019 사회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장애인의 기부금액과 자원봉사시간에 초점을 두고 전반적 실태와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때, 장애인의 나눔행동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기부금액과 자원봉사시간 사이의 상호관련성을 분석에 반영해 주는 SUR토빗모형(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Tobit Model, 이하 SUR토빗모형)을 사용하고, 전반적 실태 및 영향요인에 있어 비장애인 집단과의 비교를 해보고자 한다. 셋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장애인 집단의 나눔행동 특성을 도출하고 학술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장애인의 나눔행동

경험적으로 나눔행동의 정의는 다양할 수 있으나 학술적 연구에서는 대체로 기부와 자원봉사의 측면에서 논의된다. 선행연구들에서는 나눔행동의 정의에 대해 보상에 대한 기대가 배제된 상태에서 타인의 이익을 지향하는 자발적이고 희생적인 도움행위로 일반적으로 물질, 시간, 노동 등을 나누는 형태(강철희 외, 2012), 금전(기부금, 화폐적 기여)과 시간(자원봉사, 자선적 노동공급)을 제공하는 기부행위(조선주, 2007)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나눔행동을

2) “작은 정성 모아 이웃사랑 실천하는 장애인 기부 천사들”, 강원도민일보, (2020.1.28.), <http://www.kado.net/?mod=news&act=articleView&idno=1007578>

기부와 자원봉사행동에 한정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장애인의 나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사회에서는 많은 장애인들이 기부와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인적, 사회적, 문화적 자원을 많이 가진 개인들이 기부와 자원봉사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Wilson & Musik, 1997),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평균적으로 매우 낮은 소득과 학력을 가지고 있음에도(이성은, 2009) 어떠한 영역에서는 비장애인보다 더 적극적인 나눔을 실천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소 모순되는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장애인의 나눔행동을 설명하는 체계적 이론을 찾아보기는 어려우나 인간의 성공적 발달을 선택과 적응의 측면에서 논의한 선택, 최적화, 보상 이론(The theory of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이하 'SOC 이론')은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SOC 이론에서는, 생의 과정(life span)에서 자원의 제한을 경험하는 개인의 경우, 바람직한 결과를 최대화 하기 위해 여러 목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selection)하고, 남아있는 자원을 재배치하거나 개선하는 최적화(optimization) 전략 또는 외부의 도움을 받는 보상(compensation) 전략을 통해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고 보았다(Baltes, 1997; Balts & Dickson, 2001). 이를 장애인의 나눔행동에 적용해보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기부나 자원봉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원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기부나 자원봉사에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자신이 가진 자원들을 최적화하거나 외부의 도움을 받아 나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나눔행동은 이를 수행하는 장애인 개인과 이들을 둘러싼 사회에 긍정적 편익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먼저 개인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나눔행동은 일반적으로 이를 수행하는 주체에게 기쁨과 보람, 성취감을 제공하고, 정신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이 악화되는 속도를 늦추는 역할까지도 한다(Li & Ferraro, 2005; Luoh & Herzog, 2002; Meier & Stutzer, 2004). 장애인에 초점을 둔 연구들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는데, 장애인의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가 자아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사회적 자본을 확대시키며,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된다(이계승, 2014; 최명민, 2004; 허숙민·박태영, 2016).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나눔행동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및 비영리조직을 지원할 수 있는 주요 자원이 될 수 있고(이현기, 2010), 특히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의 나눔행동은 이들을 돌봄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사회적 고정관념을 변화시키고 이들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개선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게 된다(김종선, 2016; Haski, 2009; Kam, 1996).

그러나, 이와 같은 편익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을 나눔의 주체로 바라보는 인식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학술적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되는데, 국내 주요 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장애인’과 ‘기부’ 또는 ‘장애인’과 ‘자원봉사’를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대부분 장애인을 나눔의 대상으로 상정 한 채 장애인을 대상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기부자(이한규·이승조, 2017; 이요행·김성희, 2010)나 자원봉사자(김호일 외, 2003; 심태영·박준태, 2019)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최명민(2004)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장애인이 과연 나눔을 할 수 있는지, 서비스 대상자였던 장애인들이 제공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사회적 의구심이 이에 대한 관심을 가로막아 왔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한국의 상황에서 장애인을 나눔의 주체로서 바라보고 수행된 국내 연구들은 다음과 같이 3편이 확인된다. 최명민(2004)은 시설거주 정신장애인이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과 함께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자아상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음을 보고하였고, 이성은(2009)은 2차 데이터를 활용해 장애인의 자원봉사 참여에 성별, 교육수준, 건강상태, 사회적관계망, 종교활동 등이 주요 영향요인임을 보고하였으며, 김미희(2017)는 지체장애인의 자원봉사 참여에 교육수준, 일상생활수행능력(ADL), 직업훈련 참여여부, 친구 수 등이 주요 영향요인임을 보고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새로운 시각으로 장애인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장애인 집단에만 초점을 두면서 다른 집단과의 공통적 또는 차별적 특성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였고, 나눔의 또 다른 유형인 동시에 자원봉사 참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행동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집단의 나눔행동이 비장애인 집단과 비교해 어떤 차이를 갖는지 확인함과 동시에 대표적 나눔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기부와 자원봉사 모두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해보고자 한다.

2. 기부와 자원봉사행동 간의 관계

나눔행동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들은 기부와 자원봉사행동 간의 상호관계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Bekker(2002)는 기부와 자원봉사 사이에 파급적(spill-over) 관계 또는 교환적(trade-off) 관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는데 그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파급적(spill-over) 관계는 기부나 자원봉사 중 어느 한 가지 유형의 나눔에 참여하는 사람은 다른 유형의 나눔에 참여할 가능성을 높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는 어느 유형의 나눔이든 본질적으로는 타인의 복지에 관심을 갖는 친사회적 성향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향을 가진 개인들은 모든 나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는 어느 한 가지 유형의 나눔에 참여하는 사람은 다른 유형의 나눔에 참여하도록 요청받는 기회

가 많기 때문에 이 두가지 행동은 파급적 관계에 놓이게 될 수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교환적(trade-off) 관계는 기부나 자원봉사가 서로에 대한 대체재(substitutes)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는 ‘합리적 선택(rational choice)’이라는 신고전주의 경제학적 가정에서 설명되어지는데, 개인들은 좋은 시민(good citizens)으로서 의무를 담당하기 위해 자신에게 더 유리한 방법으로 나눔을 실천한다고 본다. 즉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자원봉사에, 금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기부에 선택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실증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연구대상과 맥락에 따라 파급적 또는 교환적 관계가 모두 보고되고 있다. 먼저, 파급적 관계를 지지하는 결과로는 서울 시민들의 기부참여와 자원봉사참여 사이에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 한 연구(이종화 외, 2019). 기부와 자원봉사를 직접적으로 비교하지는 않았으나 미국의 성인 기부자 및 자원봉사자들 중 약 80%가 기부 및 자원봉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결과를 제시하며 참여요청 기회가 나눔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음을 강조한 연구(Bryant et al., 2003), 국내 일반 시민들의 기부금액과 자원봉사시간 사이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연구(강철희 외, 2017a), 국내 노인세대의 기부금액과 자원봉사시간 사이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연구(강철희 외, 2017b) 등이 보고되었다. 그리고 교환적 관계를 지지하는 결과로는 자선단체가 기부금 모집으로 정부 지원의 제한을 받는 경우 기부금 대신 자원봉사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한 미국의 연구(Duncan, 1999), 네덜란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소득수준은 기부금액에 정적 영향력을 갖고 근로시간은 자원봉사시간에 부적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Bekker, 2002),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나눔행동에도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자원봉사만 참여하는 경향이, 소득이 높을수록 기부에만 참여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한 연구(강철희 외, 2012) 등이 보고되었다.

지금까지 정리한 논의에서 중요한 점은 어느 쪽 관점이든 기부와 자원봉사 사이에는 의미있는 상관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실증적 분석을 시도할 경우에는 정확하지 않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고 장애인의 나눔행동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느 한가지 종류의 나눔행동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기부와 자원봉사행동의 관계를 함께 이해해보고자 한다.

3. 나눔행동에 대한 영향요인

많은 연구자들은 개인의 기부 및 자원봉사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Wilson과 Musik(1997)이 제안한 자원관점(Resource perspective)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강철희 외, 2017; 김지혜·정의

중, 2012; Bryant et al., 2003; Bekkers & Wiepking, 2007). Wilson과 Musik(1997)은 ‘나눔행동의 본질은 이타주의가 아니라 바람직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 서비스, 재화, 금전 등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나눔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에게 인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각종 자원들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들이 제시하는 세 가지 측면의 자원을 보다 세분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인적자원(human capital)은 개인이 보다 생산적으로 나눔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원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주는 교육수준, 건강, 소득 등의 변수가 포함된다. 인적자원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인구자원 변인들이 나눔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선행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수준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높은 수준의 교육수준은 대체로 기부횟수에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kkers, 2004; 박태규 외, 2008; 이현기, 2012; 김지혜·정익중, 2012). 그러나 자원봉사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결과마다 다소 상이한 결과가 도출됨을 알 수 있었다(Bekkers, 2002; 강철희 외, 2012). 인적자원의 다른 변수인 건강상태의 경우 주로 자원봉사에 대해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많은 연구에서 지지되었으며(Tang, 2006; Komp et al., 2012), 기부행동에는 대체로 유의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 변수는 선행연구를 통해 경제적 자원의 속성을 포괄하는 인적자원의 하위요인으로 간주되었으며, 일반적으로 높은 소득수준은 개인의 기부 의도, 기부행동여부, 기부금액에 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이용규, 송용찬, 2012; 홍은진, 2005),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소득이 미치는 영향은 다소 상이한 결과가 제시되었다(Tang, 2006; Einolf, 2011; 강철희 외, 2012). 마지막으로 개인의 나눔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자원의 변수로 계층의식이 있으며, 이는 개인의 사회적 행동을 특징짓는 의식적 요인으로서 사회경제적 계층지위를 높게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기부와 같은 나눔행동의 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자영, 김두섭, 2013).

사회적자원(social capital)은 정보, 인력풀, 신뢰 등과 같이 나눔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들을 제공해주는 관계적 자원으로서 사회적 연결망 혹은 규범, 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징을 의미하는데, 개인이 가진 사회적 관계망의 수, 관계망의 종류, 사회단체참여 여부 등의 변수가 포함된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적자원이 개인의 나눔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사회적 관계망과 사회단체의 참여가 기부와 자원봉사와 같은 나눔행위에 정(+)의 효과를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Bryant et al, 2003; Rossi, 2001; 김지혜, 정익중, 2012; 이현기, 2012). 강철희 외(2017b)의 연구를 살펴보면 국내 노인의 기부와 자원봉사 영향요인을 비교하여 비교적 많은 사회적자원을 확보한 전기노인의 경우 인적, 사회적, 문화적 자원들 대부분 나눔행동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검증되었고, 자원의 감소를 경험하는 후기노인

의 경우에는 사회적 자원만 나눔행동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문화적자원(cultural capital)은 개인에게 윤리적 또는 자선적 가치를 부여해주는 자원을 의미하는데,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자선의 문화를 장려해온 종교를 문화적 자원의 대표 변수로 제시한다(이현기, 2012; Wilson & Musick, 1997). 일반적으로 종교는 이웃에 대한 봉사와 기부를 강조하고, 봉사와 기부의 실천을 중용하기 때문에(Cnaan, 1999), 종교를 갖는 사람들은 나눔행동에 있어서도 비종교인에 비해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Bekkers, 2003; 홍은진, 2005; 강철희 외, 2009). Musick과 Wilson(2008)의 연구에서는 종교 활동이 개인의 가치와 규범의 내재화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동시에 종교를 통해 자원봉사의 기회도 확장시키는 매우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아름다운재단(2008)의 연구에 따르면 자원봉사 참여 비율은 비종교인이 10.6%인 반면 종교인은 18.3%로 나타났고, 종교인의 자원봉사 참여시간은 11.6시간(비종교인이 3.2시간)으로 그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이형탁 외, 2013).

Wilson과 Musick(1997)의 자원관점은 개인이 가진 자원의 수준과 나눔행동 참여 수준 사이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력을 포괄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다는 점,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비장애인에 비해 열악한 자원을 소유한 장애인들이 기부와 자원봉사에 참여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원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장애인의 나눔행동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고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원관점에서 제시하는 3가지 측면의 요인들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나눔행동을 설명해보고자 하며, 다음에서는 기부 및 자원봉사행동에 대한 이 요인들의 영향력을 보고한 실증연구들의 결과를 정리한다.

III. 연구방법

1. 분석 데이터 및 대상

본 연구는 통계청이 매년 조사하고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 ‘사회조사’의 2019년 원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다. ‘사회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일반 조사구를 표본추출틀로 활용하고, 지역별 층화 및 분류지표에 따라 확률비례계통추출방법을 통해 표본을 추출하고 있어 표본의 규모와 대표성이 매우 높은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조사’ 각 부분별 2년 주기로 조사하는데, 2019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기부와 자원봉사 행동, 이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본 연구에 적합한 데이터라고 볼 수 있다.

분석대상은 전체 응답자 36,310명 중 일반 성인과 비교해 나눔행동과 자발성 측면에서 차이를 가질 수 있는 만18세 미만 아동청소년 1,801명, 연간 1,00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한다고 응답해 이상치라고 의심할 수 있는 2명을 제외한 34,507명으로 하였다. 이 중 장애인복지카드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이를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2,311명은 장애인 집단으로,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32,196명은 비장애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2. 주요 변수의 구성 및 측정방법

본 연구에서 활용한 변수의 구성 및 측정방법은 <표 1>과 같다. 먼저,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기부금액과 자원봉사시간은 지난 1년 동안 현금기부액의 총합과 자원봉사 참여시간의 총합으로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설명변수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인적자원, 사회적자원, 문화적자원,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인적자원으로는 건강상태, 교육수준, 가구소득, 계층의식을 사용하였고, 사회적자원으로는 일반 사회단체참여 여부, 사회적관계망의 수를 사용하였다. 문화적자원으로는 일반 사회단체와 그 성격이 구별될 수 있는 종교단체참여 여부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를 통해 기부 및 자원봉사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성별, 배우자 유무, 취업상태, 거주지역을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집단과 비장애인 집단을 구분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카드 소유여부를 기준으로 장애유무 변수를 구성하였다.

<표 1> 주요변수의 구성 및 측정방법

구분	변수명	측정방법
종속변수	기부금액	지난 1년 동안 현금기부액의 총합(천원)
	자원봉사 시간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시간의 총합(참여횟수×평균시간)
설명변수	장애유무	장애인복지카드 소유여부(ref. 미소유=0, 소유=1)
	인적 자원	건강상태 체력이나 건강문제로 인해 여가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ref. 여가활동 어려움=0, 여가활동 어려움 없음=1)
		교육수준 ①무학 및 초졸이하 ②중졸이하 ③고졸이하 ④대졸이하 ⑤대학원이상
		가구소득 지난 1년 동안 가구 월평균 소득액(만원) ①100미만 ②100~200미만 ③200~300미만 ④300~400미만 ⑤400~500미만 ⑥500~600미만 ⑦600이상
		계층의식 스스로 인식하는 사회경제적 지위(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 수준 ①하 ②중 ③상

장애인의 기부와 자원봉사 행동에 관한 연구 : 장애는 나눔을 제약하는가?
이종화·손영은

구분	변수명	측정방법
사회적 자원	일반 사회단체 참여	지난 1년 동안 종교단체를 제외한 일반사회단체(친목 및 사교, 취미 및 스포츠, 시민 사회, 학술, 이익, 정치, 지역사회 모임, 기타) 참여여부 (ref. 미참여=0, 참여=1)
	사회적 관계망	집안일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 돈을 빌려줄 사람, 이야기 상대, 교류하는 사람(가족 및 친척 포함)의 수를 합산한 값
문화적 자원	종교활동	지난 1년 동안 종교단체 참여 여부(ref. 미참여=0, 참여=1)
인구 사회학적 요인	성별	성별 (ref. 여성=0, 남성=1)
	배우자 유무	배우자 유무 (ref. 배우자 없음_미혼, 사별, 이혼=0, 배우자 있음=1)
	취업상태	취업 유무 (ref. 미취업=0, 취업=1)
	거주지역	거주지역 (ref. 비도시_읍면부=0, 도시_동부=1)

3. 분석방법

분석에 있어 기부금액과 자원봉사시간을 종속변수로 사용할 경우 두 가지 측면이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첫째로 고려해야 할 것은 종속변수가 상당한 수의 '0'값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기부금액이나 자원봉사시간과 같은 변수에는 '0'의 관찰값이 다수 관찰되는데, 이는 1년 동안 기부나 자원봉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응답자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인 최소자승법(OLS) 회귀분석으로는 효율적인 추정이 어려운데, '0'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경우 편이의 정도가 커지면서 설명변수의 영향을 과소 또는 과대 추정하게 된다(이승천·최병수, 2014). 이러한 경우 토빗모형(Tobit Model)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일반적인 단변량 토빗모형은 다음의 식(1)과 같은 형태를 갖는데, 여기서 잠재적(latent) 종속변수 y_i^* 는 다음과 같이 0보다 큰 값만 실제로 관찰되고 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은 모두 0으로 관찰된다.

$$y_i^* = \alpha + \beta x_i + e_i, \quad i=1,2,\dots, n \quad \text{식(1)}$$

$$\text{if } y_i^* > 0, \quad y_i = y_i^*$$

$$\text{if } y_i^* \leq 0, \quad y_i = 0$$

이 때, 종속변수의 정규분포를 가정하는 최소자승법 회귀분석은 $y_{it}^* > 0$ 인 표본 만을 추정에 사용하는데 반해, 토빗모형은 $y_{it}^* \leq 0$ 인 표본까지도 모두 추정에 사용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민인식·최필선, 2015; Tobin, 1958; Wang & Graddy, 2008).

둘째로 고려해야할 것은 기부금액과 자원봉사시간 사이에 존재하는 상관관계이다. 개인의 기부와 자원봉사 행동에 대한 연구들 중 많은 경우에서 이 두 가지 변수를 상호독립적이라고 가정하고 분석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선행연구들(이종화 외, 2019; Bauer et al., 2013; Duncan, 1999; Kang et al., 2017)에 따르면 기부와 자원봉사 행동은 상호 독립적으로 보기 어렵다. 다시말해 기부와 자원봉사 중 어느 한가지 나눔 행동의 경험은 다른 나눔 행동에 대한 참여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두 변수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은 연구모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만약, 기부금액과 자원봉사시간 사이에 상호의존성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각각의 함수를 별도의 단변량 토빗모형으로 추정해도 무방하지만, 상호의존성이 존재할 경우에는 이러한 방식은 비효율적 추정치를 도출하기 때문이다. 이 때, 식(2)와 같은 SUR토빗모형을(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Tobit Model) 활용할 수 있다(강철희 외, 2017).

$$\begin{cases} Y_{i1} = Y_{i1}^* = \alpha_1 + \beta_1 \chi_{i1} + \epsilon_{i1} & \text{if } Y_{i1}^* > 0 \text{ and } Y_{i1} = 0 \text{ otherwise,} \\ Y_{i2} = Y_{i2}^* = \alpha_2 + \gamma_2 \chi_{i2} + \epsilon_{i2} & \text{if } Y_{i2}^* > 0 \text{ and } Y_{i2} = 0 \text{ otherwise} \end{cases} \quad \text{식(2)}$$

$$\begin{bmatrix} \epsilon_1 \\ \epsilon_2 \end{bmatrix} \sim (0, \Omega), \quad \Omega = \begin{bmatrix} \sigma_1^2 & \rho_{12} \\ \rho_{12} & \sigma_2^2 \end{bmatrix}$$

이와 같이 SUR토빗모형은 오차항 사이에 상관성이 존재하는 2개의 방정식을 동시에 추정함으로써 단변량 토빗모형에 비해 효율적인 추정을 가능하게 해준다(Yu & Yu,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에 상당한 수의 '0'값을 포함한다는 점, 2개 이상의 종속변수들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모형에 반영해 줄 수 있는 SUR토빗모형을 활용하고자 한다.

IV. 연구결과

1. 기술적 통계분석의 결과

본 연구에서 활용한 종속변수에 대한 기술적 통계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지난 1년간 기부금액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집단 중 기부자와 비기부자를 모두 포함한 기부

장애인의 기부와 자원봉사 행동에 관한 연구 : 장애는 나눔을 제약하는가?
이종화·손영은

금액 평균은 약 10만 2천원이고 전체 집단 중 기부자들의 기부금액 평균은 약 42만 4천원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집단과 비장애인 집단의 기부금액 평균차이를 비교해보면, 장애인 집단 중 기부자와 비기부자를 모두 포함한 기부금액 평균은 약 5만원, 비장애인 집단 중 기부자와 비기부자를 모두 포함한 기부금액 평균은 약 10만 5천으로, 비장애인 집단의 기부금액 평균이 약 2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기부금액의 평균 차이 역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애인 집단 중 기부자들의 기부금액 평균은 약 33만 2천원, 비장애인 집단 중 기부자들의 기부금액 평균은 약 42만 9천원으로, 비장애인 집단의 기부자 기부금액 평균이 약 1.3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기부금액의 평균 차이 역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난 1년 간 봉사시간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집단 중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를 모두 포함한 봉사시간 평균은 약 3.3시간이고 전체 집단 중 자원봉사자들의 봉사시간 평균은 약 27.5시간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집단과 비장애인 집단의 봉사시간 평균차이를 비교해보면, 장애인 집단 중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를 모두 포함한 봉사시간 평균은 약 3.1시간, 비장애인 집단 중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를 모두 포함한 봉사시간 평균은 약 3.3시간으로 두 집단 간 봉사시간의 평균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애인 집단 중 자원봉사자들의 봉사시간 평균은 약 40.8시간, 비장애인 집단 중 자원봉사자들의 봉사시간 평균은 약 26.9시간으로 장애인 집단의 자원봉사자 봉사시간 평균이 약 1.5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봉사시간의 평균 차이 역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종속변수에 대한 기술 통계분석 결과

변수		계 (전체=34,507, 기부자=8,300, 봉사자=4,157)	장애인 (전체=2,311, 기부자=351, 봉사자=174)	비장애인 (전체=32,196, 기부자=7,949, 봉사자=3,983)	장애인 vs 비장애인
		mean(sd)	mean(sd)	mean(sd)	t
연간 기부금액/ 1000	전체	102.21(495.61)	50.49(263.68)	105.93(508.02)	5.20***
	기부자	424.95(940.32)	332.43(604.06)	429.04(952.26)	1.88*
연간 자원봉사시간	전체	3.30(18.90)	3.08(23.77)	3.32(18.50)	0.63
	봉사자	27.45(47.98)	40.75(77.45)	26.87(46.19)	-3.74***

다음에서는 집단별로 어떤 유형의 나눔행동에 주로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두 집단의 기부자와 자원봉사자에 한정해 유형별 기부금액 및 봉사시간을 제시하였다. 먼저 두 집단 기부자들의 유형별 기부금액을 비교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기부가 많이 이루어지는 순서대로 비교해보면 장애인 기부자들은 기타유형을 제외하고 종교단체를 통한 후원, 대상자에게 직접 후원, 모금단체를 통한 후원 순으로 나타났고 비장애인 기부자들은 기타유형을 제외하고 종교단체를 통한 후원, 대상자에게 직접 후원, 직장을 통한 후원 순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의 유형별 기부금액 평균차이를 비교해보면 언론기관을 통한 후원과 종교단체를 통한 후원에서 비장애인 기부자들의 기부금액 평균이 유의미하게 높았고, 다른 유형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 기부유형에 따른 기부금액 비교(장애인 기부자 vs. 비장애인 기부자)

변수 (연간기부금액/1,000)	계 (n=8,300)	장애인 기부자 (n=351)	비장애인 기부자 (n=7,949)	장애인 vs 비장애인
	mean(sd)	mean(sd)	mean(sd)	t
대상자에게 직접 후원 (개인, 보육원, 양로원, 의료기관 등)	370.45(1130.50)	287.15(436.80)	373.91(1150.19)	0.57
언론기관을 통한 후원 (방송사, 신문사 등)	120.98(199.62)	62.93(53.70)	124.81(205.09)	1.67*
모금단체를 통한 후원 (모금회, 적십자사, 월드비전 등)	234.46(428.62)	229.20(529.83)	234.68(424.04)	0.17
종교단체를 통한 후원 (특별헌금, 구제헌금 등)	618.41(1038.42)	433.65(630.63)	627.65(1053.91)	1.99**
직장을 통한 후원	246.98(827.35)	120.74(100.42)	250.13(837.23)	0.80
기타	441.77(1328.01)	603.33(789.96)	434.32(1351.12)	-0.21

장애인의 기부와 자원봉사 행동에 관한 연구 : 장애는 나눔을 제약하는가?
이종화·손영은

두 집단 자원봉사자들의 유형별 봉사시간을 비교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봉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순서대로 비교해보면 장애인 봉사자들은 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소자 등 관련 봉사, 재해지역 주민돕기 및 시설복구 관련 봉사, 환경보전 및 범죄예방 등과 관련한 봉사 순으로 나타났고 비장애인 봉사자들은 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소자 등 관련 봉사, 기타 일반인을 위한 봉사, 환경보전 및 범죄예방 등과 관련한 봉사 순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의 유형별 봉사시간 평균차이를 비교해보면 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소자 등 관련 봉사에서 장애인 봉사자들의 봉사시간 평균이 유의미하게 높았고, 다른 유형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 자원봉사유형에 따른 자원봉사시간 비교(장애인 vs. 비장애인)

변수 (연간자원봉사시간)	계 (n=4,157)	장애인 (n=174)	비장애인 (n=3,983)	장애인 vs 비장애인
	평균(sd)	평균(sd)	평균(sd)	t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재소자 등과 관련 (복지시설, 병원, 개인가정봉사, 방과후 교실 등)	29.76(48.87)	52.35(95.94)	28.78(45.54)	-4.67***
환경보전, 범죄예방 등과 관련 (마을청소, 방범활동 등)	18.32(41.79)	17.82(25.61)	18.35(42.61)	0.10
자녀교육 등과 관련 (일일교사, 교통지도 등)	11.41(27.79)	8.80(9.84)	11.46(28.01)	0.30
국가 및 지역행사 등과 관련 (스포츠, 문화행사 등에서 안내, 통역 등)	14.37(17.33)	17.36(31.96)	14.29(16.84)	-0.58
재해지역 주민돕기 및 시설복구 등과 관련 (해외 구호 포함)	14.71(41.71)	24.81(61.17)	14.15(40.44)	-1.00
기타 일반인을 위한 봉사관련 (관공서 업무지원, 무료상담 등)	20.24(30.09)	14.65(12.55)	20.47(30.58)	0.78

본 연구에서 활용한 설명변수에 대한 기술적 통계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인적자원에서 건강상태로 인해 여가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대상자는 전체 약 4.2%인데, 그 비율을 비교해 보면 장애인 집단(16.1%)이 비장애인 집단(3.3%)에 비해 약 12.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은 무학 및 초졸이하 학력에서 장애인 집단(39.9%)이 비장애인 집단(14.4%)에 비해 약 25.5% 높고, 대졸 및 대학원 이상 학력에서 장애인 집단(13.3%)이 비장애인 집단(45.0%)에 비해 약 31.7% 낮아 교육수준에서 두 집단 간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은 비장애인 집단은 전 소득층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데 반해 장애인 집단은 월100만원 미만(36.7%), 월100~200만원(26.1%)에 약 62.8%가 분포되어 있어 두 집단 간 소득분포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의식이 ‘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장애인 집단(59.1%)이 비장애인 집단(38.5%)에 비해 약 20.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자원에서 일반단체참여 비율은 장애인 집단(47.5%)이 비장애인 집단(64.3%)에 비해 약 16.8% 낮게 나타났고, 사회적관계망 역시 장애인 집단(평균7.3명)이 비장애인 집단(평균10.1명)에 비해 평균 약 2.8명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화적자원에서 종교활동 비율은 장애인 집단(20.3%)과 비장애인 집단(20.0%) 사이에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성의 비율은 장애인 집단(44.7%)이 비장애인 집단(52.9%)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배우자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장애인 집단(39.7%)이 비장애인 집단(35.6%)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상태에 있는 비율은 장애인 집단(59.9%)이 비장애인 집단(37.0%)에 비해 약 22.9%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비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은 장애인 집단(40.5%)이 비장애인 집단(26.4%)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설명변수에 대한 기술 통계분석 결과

변수		구분	계 (n=34,507)	장애인 (n=2,311)	비장애인 (n=32,196)
			빈도(%)	빈도(%)	빈도(%)
인적 자원	건강상태	여가 어려움	1,442(4.18)	372(16.1)	1,070(3.32)
		여가 어려움 없음	33,065(95.82)	1,939(83.9)	31,126(96.68)
	교육수준	무학 및 초졸이하	5,571(16.14)	922(39.9)	4,649(14.44)
		중졸이하	3,525(10.22)	441(19.08)	3,084(9.58)
		고졸이하	10,598(30.71)	638(27.61)	9,960(30.94)
		대졸이하	13,314(38.58)	274(11.86)	13,040(40.5)
		대학원이상	1,499(4.34)	36(1.56)	1,463(4.54)
	가구소득	①100미만	5,189(15.04)	847(36.65)	4,342(13.49)
		②100~200미만	6,000(17.39)	603(26.09)	5,397(16.76)

장애인의 기부와 자원봉사 행동에 관한 연구 : 장애는 나눔을 제약하는가?
이종화·손영은

변수		구분	계 (n=34,507)	장애인 (n=2,311)	비장애인 (n=32,196)
			빈도(%)	빈도(%)	빈도(%)
		③200~300미만	6,497(18.83)	341(14.76)	6,156(19.12)
		④300~400미만	5,665(16.42)	225(9.74)	5,440(16.9)
		⑤400~500미만	4,043(11.72)	118(5.11)	3,925(12.19)
		⑥500~600미만	2,831(8.20)	75(3.25)	2,756(8.56)
		⑦600이상	4,282(12.41)	102(4.41)	4,180(12.98)
	계층의식	하	13,764(39.89)	1,365(59.07)	12,399(38.51)
		중	19,938(57.78)	908(39.29)	19,030(59.11)
		상	805(2.33)	38(1.64)	767(2.38)
사회적 자원	일반사회단체 참여	미참여	12,718(36.86)	1,214(52.53)	11,504(35.73)
		참여	21,789(63.14)	1,097(47.47)	20,692(64.27)
	사회적관계망 평균(SD)		9.89명(8.00)	7.25명(6.50)	10.08명(8.07)
문화적 자원	종교활동	미참여	27,604(80.00)	1,841(79.66)	25,763(80.02)
		참여	6,903(20.00)	470(20.34)	6,433(19.98)
인구 사회학적 요인	성별	여성	18,060(52.34)	1,034(44.74)	17,026(52.88)
		남성	16,447(47.66)	1,277(55.26)	15,170(47.12)
	배우자 유무	배우자 없음	12,367(35.84)	917(39.68)	11,450(35.56)
		배우자 있음	22,140(64.16)	1,394(60.32)	20,746(64.44)
	취업상태	미취업	13,312(38.58)	1,385(59.93)	11,927(37.04)
		취업	21,195(61.42)	926(40.07)	20,269(62.96)
	거주지역	비도시	9,428(27.32)	936(40.5)	8,492(26.38)
		도시	25,079(72.68)	1,375(59.5)	23,704(73.62)
	연령 평균(SD)		51.28세(17.52)	65.23세(14.86)	50.28세(17.27)

2. 전체 분석대상의 기부금액과 자원봉사시간에 대한 SUR토빗모형 분석결과

먼저, 장애가 나눔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장애인 집단과 비장애인 집단을 구분하지 않은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기부금액과 봉사시간에 대한 장애유무의 영향력을 확인해보고자 하였고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SUR토빗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기부금액과 자원봉사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인적자원(건강상태, 교육수준, 가구소득, 계층의식), 사회적 자원(일반사회단체참여, 사회적관계망), 문화적 자원(종교활동), 인구사회학적요인(성별, 연령, 배우자유무, 취업상태, 거주지역)의 변수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장애유무는 기부금액과 봉사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의 유무가 기부금액이나 봉사시간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전체 분석대상의 기부금액과 봉사시간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우도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chi^2(1)=541.388$ 로 유의수준 .001에서 '기부금액 방정식과 자원봉사시간 방정식의 오차항들 간 공분산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분석대상들이 기부나 자원봉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 나눔행동은 정적 상호관련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모형에 고려하지 않는 것은 비효율적 추정이나 잘못된 해석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분석을 위해 SUR토빗모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표 6> 전체 분석대상의 기부금액과 자원봉사시간에 대한 SUR토빗모형 분석결과

변수	기부금액		봉사시간	
	Coef.	P>z	Coef.	P>z
장애유무	-33.263	0.406	2.804	0.356
절편	-8559.927	0.000	-231.237	0.000
sigma1	1093.247***			
sigma2	71.442***			
rho12	0.232***			
LR test	$\chi^2(1) = 541.388$ ***			

※ 통제변수 : 인적자원(건강상태, 교육수준, 가구소득, 계층의식), 사회적 자원(일반사회단체참여, 사회적관계망), 문화적 자원(종교활동), 인구사회학적요인(성별, 연령, 배우자유무, 취업상태, 거주지역)

※ * $p<.05$, ** $p<.01$, *** $p<.001$

3. 집단별 기부금액과 자원봉사시간에 대한 SUR토빗모형 비교 분석결과(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비교)

장애인 집단과 비장애인 집단 각각에서 기부금액과 봉사시간에 대한 영향요인들을 SUR토빗모형을 통해 비교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먼저, 장애인 집단의 기부금액과 자원봉사시간에 대한 결과를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인적 자원에서 계층의식(+), 사회적 자원에서 일반사회단체참여(참여), 사회적 관계망(+), 문화적 자원에서 종교활동(참여)은 기부금액과 봉사시간 모두에 공통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수준(+), 가구소득(+), 취업상태(일자리 있음)는 기부금액에 대해서만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 거주지역(도시거주)은 봉사시간에 대해서만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장애인 집단의 기부금액과 자원봉사시간에 대한 결과를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인적자원에서 건강상태(여가 어려움 없음), 교육수준(+), 가구소득(+), 계층의식(+), 사회적자원에서 일반사회단체참여(참여), 사회적 관계망(+), 문화적 자원에서 종교활동(참여),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 성별(여성), 배우자유무(배우자있음)은 기부금액과 봉사시간 모두에 공통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과 취업상태는 기부금액과 봉사시간에 있어 상반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부금액에 있어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일자리를 가진 경우 기부금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봉사시간에 있어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일자리가 없는 경우 봉사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기부금액에는 유의한 영향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봉사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위의 영향요인들을 고려한 상태에서 기부금액과 봉사시간의 상관관계를 집단별로 살펴보면 장애인 집단($\rho=0.323$)과 비장애인 집단($\rho=0.229$) 모두에서 기부금액과 봉사시간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느 한가지 나눔행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다른 나눔에도 참여하는 경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러한 경향성의 강도는 비장애인 집단에 비해 장애인 집단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두 집단 간 차이를 중심으로 비교해보면 기부금액 있어서 인적자원의 교육수준, 가구소득, 계층의식, 사회적자원의 일반사회단체참여, 사회적관계망, 문화적자원의 종교활동, 인구사회학적요인의 취업상태는 두 집단 모두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지만 건강상태, 성별, 배우자 유무 변수는 장애인 집단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사시간에 있어서 인적자원의 계층의식, 사회적자원에서 일반사회단체참여, 사회적관계망, 문화적자원에서 종교활동, 인구사회학적요인에서 연령, 거주지역은 두 집단 모두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지만 건강상태, 교육수준, 가구소득, 성별, 배우자유무, 취업상태 변수는 장애인 집단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기부금액과 자원봉사시간 영향요인에 대한 SUR토빗모형 분석결과(장애인 vs. 비장애인)

변수		장애인(n=2,311)		비장애인(n=32,196)	
		기부금액	봉사시간	기부금액	봉사시간
		Coef.	Coef.	Coef.	Coef.
인적 자원	건강상태 (ref.여가 어려움)	42.939	22.043	281.121***	16.234**
	교육수준	155.120***	8.698	296.465***	7.656***
	가구소득	6.481***	-0.024	7.569***	0.109**
	계층의식	144.909**	21.899*	189.395***	8.353***
사회적 자원	일반사회 단체참여 (ref.지난1년간 없음)	255.132***	74.253***	294.989***	33.639***
	사회적 관계망	14.897***	2.393***	13.110***	0.903***
문화적 자원	종교활동 (ref.지난1년간 없음)	494.147***	25.144*	715.163***	24.949***
인구 사회 학적 요인	성별 (ref.여성)	63.807	-0.992	-52.444***	-8.267***
	연령	3.935	-0.942*	11.812***	-0.154**
	배우자유무 (ref.배우자무)	-7.777	-0.662	109.174***	3.752*
	취업상태 (ref.일자리 없음)	124.330*	-4.113	295.475***	-6.649***
	거주지역 (ref.도시)	59.207	-26.959*	-19.643	-14.691***
절편		-6326.427	-228.024	-8666.187	-225.146
sigma1		752.027		1105.112	
sigma2		115.487		69.081	
rho12		0.323		0.229	
LR test		$\chi^2(1) = 45.856***$		$\chi^2(1) = 501.229***$	

※ * $p < .05$, ** $p < .01$, *** $p < .001$

4. 주요 영향요인에 대한 한계효과 분석

다음은 장애인 집단 기부자와 자원봉사자들에 있어 주요 설명변수가 종속변수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표 8>과 같이 한계효과를 제시하였다³⁾. 먼저 기부자들의 기부금액 영향 요인들의 한계효과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한 단계 증가할 때 연간 기부금액은 약 2만 5천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구소득이 한 단계 증가할 때 연간 기부금액은 약 1천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층의식이 한 단계 증가할 때 연간 기부금액은 약 2만 3천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사회단체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연간 기부금액이 약 4만 2천원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관계망이 1명 증가할 때 연간 기부금액이 약 2천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연간 기부금액이 약 8만 1천원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일자리가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연간 기부금액이 약 1만 9천원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봉사자들의 봉사시간 영향요인들의 한계효과를 살펴보면 계층의식이 한 단계 증가할 때 연간 자원봉사 시간은 약 3시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 사회단체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연간 봉사시간이 약 10시간 더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관계망이 1명 증가할 때 연간 봉사시간은 약 0.3시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연간 봉사시간이 약 3시간 더 긴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한 살 증가할 때 수록 연간 봉사시간이 약 0.1시간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비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비해 연간 봉사시간이 약 3.5시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장애인 집단 기부자 및 자원봉사자들의 기부금액과 봉사시간 영향요인에 대한 한계효과 분석

변수		기부금액	봉사시간
		dy/dx	dy/dx
인적 자원	건강상태 (ref.여가 어려움)		
	교육수준	25.878	
	가구소득	1.024	
	계층의식	23.216	2.849
사회적 자원	일반사회 단체참여 (ref.지난1년간 없음)	42.177	9.741
	사회적 관계망	2.376	.316
문화적 자원	종교활동 (ref.지난1년간 없음)	81.270	3.311

3) 다른 모든 설명변수들의 값이 평균에 있을 때, 특정 설명변수의 변화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를 의미한다.

변수		기부금액	봉사시간
		dy/dx	dy/dx
인구 사회 학적 요인	성별 (ref.여성)		
	연령		-.122
	배우자유무 (ref.배우자무)		
	취업상태 (ref.일자리 없음)	19.080	
	거주지역 (ref.도시)		-3.598

V. 논의 및 결론

오늘날 장애인에 대한 전반적 인식은 과거에 비해 상당 부분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은 도움이나 나눔을 받아야 하는 수혜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장애인의 나눔은 장애인 개인 삶의 긍정적 변화, 인식개선을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 등의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으나 지금까지 장애인을 나눔의 주체로서 바라보는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수행된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정관념이 나눔의 주체로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을 제약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수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을 수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보편적 고정관념을 전환하기 위해 장애인을 나눔의 주체로서 인식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표성 높은 표본을 통해 우리사회 시민들의 전반적 생활상을 확인하게 해주는 통계청의 2019년 사회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장애인의 기부 및 자원봉사 현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자원관점(Resource perspective)의 시각에서 장애인의 기부금액 및 봉사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았다. 그리고 보다 엄밀한 분석을 위해 상호의존성이 높을 수 있는 기부금액과 봉사시간 변수의 특성을 반영한 SUR토빗모형을 사용하였고, 비장애인의 나눔행동과 비교를 통해 장애인의 나눔행동이 갖는 특성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집단이 수행하고 있는 나눔행동의 총량은 비장애인 집단과 비교해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님이 확인되었다. 특히, 기부자 및 봉사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장애인 집단은 비장애인 집단에 비해 기부금액은 약 3/4 수준, 봉사시간은 약 1.5배 수준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기부 및 자원봉사 유형에 따라 세분화 해보면 보다 눈에 띄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기부금액은 총량에 있어 장애인 집단의 금액이 다소 적을 뿐 두 집단이 전반적으로 유사한 경향성을 갖는데 반해 자원봉사에 있어서는 복지시설 중심의 봉사(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소자 등 관련)시간이 장애인 집단에서 약 1.8배로 현저히 길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에 대해 정

확히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바에 따라 추측해보면 자원봉사는 권유에 의해 시작되거나 봉사의 기회가 있는 환경에 놓여있을 때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Bryant et al., 2003; Bekker, 2002; Wilson & Musik, 1997), 비장애인에 비해 복지시설을 자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경우 해당 시설 관계자들로부터 권유를 받거나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노출될 기회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장애 자체가 나눔을 제약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장애인 나눔행동에 대한 핵심 영향요인은 문화적 자원(종교활동)과 사회적 자원(일반사회 단체 참여)임을 보여준다. 이 결과를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바에 따라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장애인의 나눔은 자원의 감소를 경험할 때 선택, 최적화, 보상 전략을 통해 스스로에게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해나간다고 보는 SOC이론을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즉, 장애인 기부자나 봉사자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나눔행동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수준은 열악하지만 종교활동이나 사회단체 참여를 통해 나눔행동에 필요한 윤리적 가치, 정보, 관계망 등의 자원들을 확보하고 이를 중심으로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나눔에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국내 전기노인 및 후기노인의 기부와 자원봉사 영향요인을 비교한 강철희 외(2017b)의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이들의 연구에서도 비교적 많은 자원을 확보한 전기노인의 경우 인적, 사회적, 문화적 자원들 대부분 나눔행동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반면 자원의 감소를 경험하는 후기노인의 경우에는 사회적 자원만 나눔행동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교적 많은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비장애인 집단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자원을 지닌 장애인 집단을 비교한 본 연구의 결과와 매우 유사하다고 보여진다.

셋째, 장애인 집단의 기부금액과 봉사시간에 대한 인적자원과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의 영향력은 다소 차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인적자원에서 교육수준과 가구소득,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 취업상태는 기부금액에만 유의한 영향력을 갖고 봉사시간에는 유의한 영향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부금액에 대한 영향력 측면에서 살펴보면 세 변수 모두 재정적 여유와 관련되기 때문에 상식적인 수준에서 예측 가능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봉사시간에 대한 영향력 측면에서 살펴보면 앞서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이 유의한 영향력을 갖지 않는다는 결과는 기부와 달리 자원봉사는 재정적 여유와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나눔의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다만, 봉사시간에 대해 취업상태 변수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본 연구에서 일자리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 비해 유의하게 봉사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 비장애인 집단 결과와 일자리가 자원봉사 참여를 제약한다고 보고하는 일반적 연구들(Bekker, 2002; 강철희 외, 2012; 조선주, 2007)의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근로시간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일자리가 있다는 것은 자원봉사를 위한 시간적 제약을 의미하는데, 장애인의 경우 비

장애인에 비해 시간제 근무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 제약이라는 측면에서 다소 자유로울 것이라고 해석해볼 수 있다. 그리고, 거주지역은 봉사시간에서만 유의한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동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봉사시간이 더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자원봉사의 기회가 도시지역에 보다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넷째, 장애인의 기부와 자원봉사 참여는 상호 파급적(spill-over)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부와 자원봉사 중 어느 한 가지의 나눔에 참여하는 사람은 다른 한 가지 나눔에도 함께 참여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기부 및 자원봉사 참여, 기부금액과 봉사시간 간의 파급적 관계를 보고한 선행연구들(Bryant et al., 2003; 강철희 외, 2017a; 강철희 외, 2017b; 이종화 외, 2019)의 결과와 일치하며, 장애인의 나눔에 대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나눔행동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기부나 자원봉사 어느 한쪽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에는 현상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본 연구가 갖는 학술적, 실천적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장애인을 나눔의 주체로서 바라보면서 기존 관련 연구들이 갖는 한계를 보완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장애인을 나눔의 주체로 바라보는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었을 뿐 아니라 모두 자원봉사의 측면에서만 다루어지고 있었기에, 기부와 자원봉사 모두에 초점을 두고 비장애인 집단과의 비교를 시도한 본 연구는 장애인의 나눔행동에 대해 보다 폭넓은 이해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장애인의 나눔행동을 설명하는데 SOC이론과 자원관점은 유용한 이론적 분석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문화적, 사회적 자원은 장애인들의 나눔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선행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를 통해 그 매커니즘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문화적, 사회적 자원의 변수들은 장애인의 나눔을 확산시키기 위해 실천현장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종교활동이나 복지시설 이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개인들은 기부나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잠재적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전문가들은 이들을 나눔의 주체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부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조사대상에서의 편의(bias)가 존재할 수 있다. 기술통계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장애인 집단에서도 건강 문제로 여가에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는 약 16%에 불과했다. 이는 설문응답이 용이한 비교적 건강한 장애인 층에 편중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빠진변수(omitted variables) 효과가 존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차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자료가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 변수를 구성할 수 밖에 없었기에 보다 세분화된 분석이 제한되었고 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장애인의 기부와 자원봉사 행동에 관한 연구 : 장애는 나눔을 제약하는가?
이종화·손영은

설명변수를 사용하는데 제한점을 가지고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들이 보완될 필요가 있는데, 장애인을 동일 집단으로 가정하기보다 장애의 정도, 유형 등에 따라 세분화하는 접근이 필요하고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변수들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나눔의 주체로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영걸. (2012). 공공 민간 사회복지사 이직의도 비교 연구: 영남지역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8(1), 86-100.
- 강철희, 정상원, 이지혜. (2009). 종교인구의 사회봉사 참여수준에 관한 연구: 종교적 요인 및 비종교적 요인의 영향력에 관한 분석. 사회복지정책, 36(1), 5-34.
- 강철희, 박태근. (2014). 가구재정 지표와 기부의 관계에 관한 연구: 기부영역에 따른 비교. 사회복지정책, 41(3), 1-25.
- 강철희, 이종화. (2017). 노인의 나눔행동 영향요인 연구: 기부금액과 자원봉사시간에 대한 연령대별 비교분석. 노인복지연구, 72(3), 429-456.
- 강철희, 김유나, 김수빈. (2017). 기부와 자원봉사의 관계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Seemingly Unrelated Tobit Model 분석.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9(2), 29-54.
- 강철희, 유재윤, 박소현. (2012). 기부와 자원봉사에의 참여 행동에 관한 연구: 누가 선택적으로 참여하고 누가 결합적으로 참여하는가? 한국사회복지학, 64(2), 273-298.
- 김동기. (2009). 자립생활서비스 이용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자립생활센터의 조직효과 연구. 사회복지조사연구회지, 21, 59-92.
- 김미희. (2017). 지체장애인의 자원봉사 참여 행동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9(4), 77-104.
- 김옥, 김현륜, 조현철. (2018).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지체장애인의 기본심리욕구, 운동만족,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한국특수체육학회지, 26(3), 111-124.
- 김자영, 김두섭. (2013). 주관적 계층의식과 사회자본이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33(2), 401-430.
- 김종선. (2016). 한국 노인의 사회기여활동 참여가 당사자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지혜, 정익중. (2012). 기부행동과 자원봉사활동은 중복적 보완관계인가? 보충적 대체관계인가? 한국사회복지학, 64(2), 133-158.
- 류시문. (2004).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1, 100-129.
- 류주현. (2017). 자조집단 참여 장애노인의 이타주의에 관한 연구.

장애인의 기부와 자원봉사 행동에 관한 연구 : 장애는 나눔을 제약하는가?
이종화·손영은

- 민인식, 최필선. (2015). STATA 고급 패널데이터분석, 서울: (주)지필미디어.
- 박태규, 윤병호, 정진욱(2008). 기부횟수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재정학연구, 1(3), 79-100.
- 보건사회연구원. (2018). 장애인의 차별인식 실태와 과제.
- 서희정. (2013). 신문사설을 통해 살펴본 장애인에 대한 미디어 담론 분석: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을 중심으로. 장애의 재해석, 48-90.
- 신은경. (2007). 장애인의 개인 및 지원환경요인이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다층모형을 이용한 분석. 직업재활연구, 17(1), 121-146.
- 아름다운 재단. (2008). 기빙코리아 2008 (Giving Korea 2008)
- 양정혜, 노수진. (2012). 휴먼 다큐멘터리가 재현하는 장애인: KBS 인간극장에 나타난 장애인 내러티브 분석. 한국방송학보, 26(3), 371-415.
- 양혜린, 고운정, 박연미, 이해란. (2017). 차별경험과 자기효능감이 후천적 지체장애인의 장애수용에 미치는 영향: 조건부 과정 모델링을 통한 사회참여 활동의 역할을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27(3), 89-112.
- 오혜경, 이희숙. (2011). 중도척수장애인의 신체기능과 사회적 지지가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 재활복지, 15, 1-23.
- 이계승. (2014).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변화양상과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 자본의 구성개념인 네트워크와 사회참여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5(2), 375-402.
- 이동진, 강미경, 유가효. (2010). 장애인의 여가활동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5(4), 137-155.
- 이성은(2009). 장애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재활복지, 13, 217-241.
- 이승천, 최병수(2014). SUR 토빗회귀모형에서 베이지안 추정과 최대가능도 추정의 비교. 응용통계연구, 27(6), 991-1002.
- 이용규, 송용찬. (2012). 기부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계획된 행동이론과 동기이론 결합모형을 토대로. 한국공공관리학보, 26(3), 189-211.
- 이종화, 김새로미. (2018). 크라우드펀딩 성과에 대한 소셜미디어의 영향: 프로젝트의 목적 (공익형 vs 사익형) 에 따른 비교분석. 사회과학연구, 25(1), 53-78.
- 이종화, 장재혁, 한민희. (2019).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itizen's

- Attitude of Welfare and Philanthropic Behaviors: Focusing on Donation and Volunteer Participation.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60, 139-164.
- 이종화. (2018). 크라우드펀딩 성과에 대한 소셜미디어의 영향: 프로젝트의 목적 (공익형 vs 사익형) 에 따른 비교분석. 사회과학연구, 25(1), 53-78.
- 이현기. (2010). 노인자원봉사활동과 사회자본: 사회자본 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0, 263-289.
- 이현기. (2012). 노인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 생태환경 변수의 효과.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2(3), 777-800.
- 이형탁, 김문섭, 이호택. (2013). 종교성이 자원봉사 참여 동기 형성에 미치는 영향. 로고스경영연구, 11(2), 121-140.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7).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창립 20주년 기념, 장애인 인권에 관한 비장애인 인식조사.
- 장윤정. (2011). 공공·민간 사회복지사 이직의도 결정요인 비교연구. 노인복지연구, 0(51), 361-382.
- 조선주. (2007). 성별 기부특성에 대한 분석연구. 한국비영리연구, 6, 165-203.
- 최강희, 박세라, 하종아. (2010). UCC 동영상에 나타난 장애인 인식분석. 재활복지, 14, 1-29.
- 최명민. (2004). 정신장애인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임파워먼트 효과. 한국사회복지학, 56(3), 89-112.
- 통계청. (2017). 2017년 사회조사.
- 허숙민, 박태영. (2016).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8, 29-55.
- 홍은진. (2005). 기부참여와 기부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7(3), 123-152.
- Andreoni, J. (1990). Impure altruism and donations to public goods: A theory of warm-glow giving. *The economic journal*, 100(401), 464-477.
- Baltes, B. B., & Dickson, M. W. (2001). Using life-span models in industrial-organizational psychology: The theory of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5(1), 51-62.

- Baltes, P. B. (1997). On the incomplete architecture of human ontogeny: Selection, optimization, and compensation as foundation of developmental theory. *American psychologist*, 52(4), 366.
- Bekkers, R. (2002). Giving time and/or money: Trade-off or spill-over. *Paper presented at the 31st Annual ARNOVA Conference*, Montreal, Canada.
- Bekkers, R. H. F. P. (2004). Giving and volunteering in the Netherlands: Sociological and psychological perspectives. *Utrecht University*.
- Bekkers, R., & Wiepking, P. (2007). Generosity and philanthropy: A literature review. *Available at SSRN 1015507*.
- Bryant, W. K., Jeon-Slaughter, H., Kang, H., & Tax, A. (2003). Participation in philanthropic activities: Donating money and time. *Journal of Consumer Policy*, 26(1), 43-73.
- Cnaan, R. A., Wineburg, R. J., & Boddie, S. C. (1999). The newer deal: Social work and religion in partnership. *Columbia University Press*.
- Duncan, B. (1999). Modeling charitable contributions of time and mone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72(2), 213-242.
- Einolf, C. J. (2011). Gender differences in the correlates of volunteering and charitable giving.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40(6), 1092-1112.
- Erlinghagen, M., & Hank, K. (2006). The participation of older Europeans in volunteer work. *Ageing & Society*, 26(4), 567-584.
- Freeman, R. B. (1997). Working for nothing: The supply of volunteer labor. *Journal of Labor Economics*, 15(1, Part 2), S140-S166.
- Gallagher, S. K. (1994). Doing their share: Comparing patterns of help given by older and younger adul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7-578.
- Haski-Leventhal, D. (2009). Elderly volunteering and well-being: A cross-European comparison based on SHARE data. *Voluntas: International Journal of Voluntary and Nonprofit Organizations*, 20(4), 388-404.
- Kam, P.-K. (1996). Empowering elderly people: A community work approach.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31(3), 230-240.

- Komp, K., Van Tilburg, T., & Van Groenou, M. B. (2012). Age, retirement, and health as factors in volunteering in later life.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41(2), 280-299.
- Krause, N., & Shaw, B. A. (2000). Giving social support to others, socioeconomic status, and changes in self-esteem in late life.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5(6), S323-S333.
- Li, Y., & Ferraro, K. F. (2005). Volunteering and depression in later life: Social benefit or selection processe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6(1), 68-84.
- Meier, S., & Stutzer, A. (2004). Is volunteering rewarding in itself? *IZA Discussion Papers 1045*.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r (IZA).
- Musick, M. A., & Wilson, J. (2003). Volunteering and depression: The role of psychological and social resources in different age groups. *Social science & medicine*, 56(2), 259-269.
- Rossi, A. S. (2001). Developmental roots of adult social responsibil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Tang, F. (2006). What resources are needed for volunteerism? A life course perspective.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25(5), 375-390.
- Tobin, J. (1958). Estimation of relationships for limited dependent variables. *Econometrica: Journal of the Econometric Society*, 24-36.
- Wang, L., & Graddy, E. (2008). Social capital, volunteering, and charitable giving. *Voluntas: International Journal of Voluntary and Nonprofit Organizations*, 19(1), 23.
- Wilson, J., & Musick, M. (1997). Who cares? Toward an integrated theory of volunteer work.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94-713.

Abstract

A Study of the Determinants of Giving and Volunteering for the Disabled Does disability limit sharing?

Lee, Jong Hwa*·Son, Young-Eun**

Despite the steady improvement in people's perception of the disabled, it is true that the disabled are still recognized as objects to be helped or receive giving in our society. Then, are disabled people only the object of philanthropic behavior but hard to perceive them as the main agent of philanthropic behavior? According Social Survey Data by Statistics Korea(2015), it was identified that the philanthropic behavior of the disabled in our society is by no means small in quantity. The annual average amount of giving of the disabled was approximately 62,000 won and the annual average hours of volunteering was about 3.7 hours which signify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e average of all respondents, and for the people who have ever participated in giving or volunteering, it was identified that the disabled volunteers spent more hours than all volunteers. Nevertheless, interest in academia and in the field of practice in philanthropic behavior is not high. Due to this lack of understanding, research that perceives and focuses on the disabled as the subject of philanthropic behavior be is very limited in Korea.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hange a universal stereotype of only perceiving the disabled as a beneficiary based on a critical mind that understanding and knowledge of them are very limited even though the giving of disabled people can carry important implications for our society and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To this end, this study investigated theoretical and empirical grounds that can explain the philanthropic behavior of the disabled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suggested related research findings. Also, this study focused on the amount of giving and

*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 Korea Association of Social Worker

volunteering hours of the disabled using 2019 Social Survey Material of The National Statistics Office that identifies the general life of the citizens of our society through a representative sample to verify the overall status and influential factors. SURTobit Model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highly interdependent variables of giving amount and volunteering hours was used for more precise analysis that reflects a correlation between donation amount and volunteering hours of the disabl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philanthropic behavior of disabled people have been identified by comparing with the philanthropic behavior of non-disabled people.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derived the characteristics of philanthropic behavior of the disabled in Korea, presented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and established an academic foundation that helps the disabled to work as a companion contributing to philanthropy instead of getting recognized as beneficiaries of philanthropy.

Keywords : Disabled people, Philanthropic Behavior, Giving, Volunteering, SURTobit Model